

귀공주를 매일아침 작성하며 내 마음 살피고 내 행동을 돌아보는 중이다. 분명 지금까지 귀공주를 체크하면서 마음을 잘 챙긴 달도 있고 잘 못 챙긴 달도 있을 터이지만 내가 점점 변화중이란 사실만은 확실하다. 처음 귀공주를 쓸 때 큰 범위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키지도 못할 개인 유무념을 정하고 나머지 12개 항목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니 초반 나의 귀공주 노트엔 X표시만 가득했었다. 이렇게 하다보니 귀공주 노트엔 X표시만 가득 채워져 갔고 점점 변화하는 나를 볼 수 없었다. 계속 이런식이라면 귀공주 노트를 쓰는 의미가 없어져가는 것 같았고 노트를 체크하기 위해 매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던 내 의지마저 떨어져갔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생각했다. 귀공주를 통해 변화하는 나를 볼 수 없다면 먼저 내가 변화해서 귀공주를 통한 변화를 이루고 싶다고. 그때부터 나는 내가 먼저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 변화라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내가 유무념 대조체크를 할 때 나에게 좀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였다. 예를 들어 배려 나눔 실천하기 항목을 체크할 때 예전 같으면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잘 지키지 않았다고 체크했었는데, 이젠 하루를 자세히 돌아본 뒤 내가 작은 일이었더라도 친구들을 도와줬다면 그 날은 그 항목을 잘 지켰다고 체크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귀공주를 대하는 나의 기준을 낮추고 마음을 돌아보니 점점 내 노트엔 O 표시가 늘어났고, 이를 보며 나는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뿌듯함을 느낀 이후로는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귀공주를 하지 않는 날은 거의 없었다. 지금도 열심히 아침마다 귀공주 체크를 하는 중이다. 빼곡하게 나의 하루 성찰과 느낀 점이 적힌 귀공주 노트를 볼 때면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 또 내 귀공주 활동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년도부터 우리 가족의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의 활동에서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작년까지만 해도 나만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재작년에는 모든 가족이 집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해 여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와 동시에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다보니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의 주제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어떤 항목으로 할까 고민하다 “하루 안부 가족들에게 묻고 이야기하기”로 정하기로 했다.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보니 서로 하루 있던 일을 아는 그 쉬운 일들이 힘들어졌고 점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졌다. 이걸 느낀 아빠는 하루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전화나 카톡으로 말할 수 있고 서로 안부를 되물어볼 수 있는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3월 한달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 주제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정한 후 우린 매일매일 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답도 해주었다. 우리 집 카톡방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고 주말에

만나면 분명 평일 내내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거의 없었다. 난 동생까지 기숙사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전보다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카톡을 통해 이야기하다가 주말에 만나면 더 애뜻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더욱 화목해진 우리가족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의 성원에 입어 4월 달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 주제도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었다. 이렇게 올해 들어 우리학교의 귀공주 활동들이 나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 같고 정말 뜻깊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았다. 변화라는 것은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좋은 변화로 이끌어주는 귀공주를 더 열심히 임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